

# 전자발찌 끊은 장흥 50대 성폭행 수사 중 도주했다

### 12일째 행방 묘연, 2차 범죄 가능성 우려...경찰, 공개 수배 결정 부착 전과자 중 78%가 3년 내 재범...전자감독 시스템 보완 시급

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 <광주일보 8월 31일 6면>은 도주 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경찰 수사와 추적을 피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는 점에서 도주 과정에서 2차 범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남성이 이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뒤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전자장치를 부착했지만 결국 성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감독제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그놈, 법무부 공개수배=1일 법무부와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마창진(50)씨를 공개수배했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

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6년 출소한 뒤 최근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마씨는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법원의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훼손하고 달아났다. 특히 마씨는 도주 전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 마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마씨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 달아난 뒤 여태껏 검거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 다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만큼 2차 범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과 법무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1일 공개수배로 방향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채워진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자 3년 내 재범 가능성 크다=성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3년 이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한국심리학회지:법'에 실린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경기대 일 반대학원 이승원) 논문에는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 중 부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 122명을 분석한 결과, 77.9%인 95명이 3년 안에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종재범자는 34명이었고 88명은 폭행·상해·협박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중(異種) 재범자였다.

지난해 발간된 '성범죄백서'에 나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 조업 중 추락 아들 구하려다 바다 뛰어든 아버지도 함께 숨져

전어잡이 조업 중 바다로 추락한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아버지가 뛰어들었지만 함께 숨졌다.

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0분께 장흥군 우산항 방조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A호(2.99t·승선원 3명)에서 선원 2명이 바다로 떨어

를 비교한 결과, 11만 3916건의 성범죄 사건 중 동종재범은 1만 5636건으로 전체 재범 사건의 13.7%, 이중재범은 9만 8280건으로 85.3%를 차지했다.

동종재범 사건 가운데 70.2%(1만 971건)는 3년 이내에 발생했다.

논문을 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승원씨는 "전자감독을 받던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대부분 3년 이내"라며 "재범을 저지르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전자감독만으로 재범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집단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졌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당시 A호에는 부모와 아들 등 3명이 전어잡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던 아들 B(37)씨가 바다에 빠지자 선장인 아버지 C(64)씨가 구하려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어선에 있던 밧줄을 던져 구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뛰어들었고 조류에 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 '학동 참사' 관련자들 검찰, 재판 병합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 모두가 한 재판부에서 심리와 선고를 받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성 및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리자 A(여·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김리자로, 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철거중인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소재를 놓고 글썽기 기사와 한술 현장소장측과 다투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오는 10월 18일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관련 재판이 단독 재판부 3곳에서 별도로 예정된 점을 들어 공범 6명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배우 뺨치는 장애 연기로 보험금 8억 챙긴 40대...어찌다 들켰나

## 1살 8개월 수준 지능 연기에 의사도 깜빡 속아 혼자서 적성검사 받고 운전면허 갱신했다 들통

###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교범 형사 1부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장애를 부풀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극히 정상이지만 1살 8개월 수준의 지능에 대화도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 연기력(?)으로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8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전문의인 의사, 수십년 경력의 수간호사 뿐 아니라 함께 치료를 받던 병실 환자들까지 깜빡 속을 정도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2개월 입원 치료를 거쳐 퇴원했다. 이 병원 입원 당시 받은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는 '정상' 수치 이내였다. 퇴원 당시 소견도 계단 오르기, 옷 입고 벗기, 보행 등의 경우 경미한 보조만 필요하고 목욕·식사, 대·소변 조절 등은 혼

가능한 상태였다.

A씨를 돌보던 B(여·56)씨도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조 없이 혼자 힘으로 이동, 식사, 배변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A씨 증상이 알려진 건 2015년 1월 말 세 번째 병원으로 옮겨 2016년 8월까지 1년 9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다. 3차례의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 수치가 40대로 나왔다. 10차례의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치매'로 판단할만한 수치가 나왔다. 담당 의사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했고 묻는 말에 허공을 쳐다보거나 침대에 머리를 박고 있기도 했다'며 후유장애 진단 시 A씨 사회 연령을 1세 8개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수간호사도 "보행, 정신도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병실을 방문,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집"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말없이 한 곳만 응시할 때도 있었다.

A씨는 이런 장애 등으로 '평생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사들로부터 8억7000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완전' (?) 범죄는 의외의 장소에서 틀어졌다. A씨가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2015년 12월, 혼자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한 게 실마리가 됐다. 검찰은 면허 갱신 과정에서 작성해야 할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 직접 작성한 사실, 담당 의사도 '정상' 소견이라고 진료를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금을 받은 이후 행정에서도 꼬리가 밟혔다. 혼자서 포크레인을 운전, 터파기·흙 운반 등의 일을 하고 직접 요리도 하고 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A씨를 돌보던 B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후유 장애를 받으려고 장애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B씨는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점을 TV에서 보고 A씨에게 삼각형으로 그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해야 보험금이 더 나온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등이 담당 의사들을 속여 A씨 실제 장애상태와 다른 과장된 내용으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회용품 없는 복구 만들어요 1일 광주 복구청 광장에서 열린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에서 문인 복구청장과 복구의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를 나눠주고 있다. <광주 복구 제공>

### 영암호 상류에서 여성 시신 발견 지인 만난 후 연락 끊긴 30대 추정

지인과 숙박업소에서 만난 이후로 연락이 끊긴 30대 여성과 같은 옷을 입은 시신이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 시신을 살인 피해자로 보고 있으나 심하게 부패해 확실한 신원확인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해남군 영암호 해안교 상류 3~4km 지점에서

A(여·39)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드론으로 호수 인근을 살피다가 이 시신을 발견하고 육안으로 성별이 여성인 것과 A씨가 외출했을 당시와 같은 옷을 입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에 걸려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B(6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에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오피스텔, 신축부지

###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515㎡(구 156형)      대지 582㎡(구 176형)
- 지하 1층, 지상 9층      지하 1층, 지상 10층
- 46㎡(구 14형), 64호실      49㎡(구 15형), 72호실
- 매매 - 18억5천만원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